

2012. 8. 21.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8월 21일(화) 09:30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KDI, 코스타리카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

## - 친치야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세미나 개최 -

- 일 시: 2012년 8월 21일(화) 08:00~09:00

- 장 소: 신라호텔

□ KDI(원장: 현오석)는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통령 일행과의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KDI를 소개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KDI의 역할' 및 성공적인 국가 간 협력모델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발표를 중심으로 코스타리카 경제·사회 부문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이번 세미나는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이 "한국이 코스타리카와 인구, 수출 의존 산업구조, 높은 교육 수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은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이라며, KSP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 개최됨.

○ 코스타리카는 이미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안정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행복지수를 기록한 국가임에도, ‘사람의 안전 (Seguridad Humana)’을 핵심 국가 운영 기조로 미래의 경제 성장과 그 결과의 고른 분배를 새로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KDI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희망함.

□ 현오석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지난 50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상호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을 앞둔 현 시점에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KSP 사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또한, 현 원장은 “한국은 KSP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은 코스타리카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한 좋은 사례”라며,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식 기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에게 KSP를 통한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힘.

□ 한편, 8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한-코스타리카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KSP MOU 체결식을 개최함.

※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대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교육·연수가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현재 33개 국과 K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행사 사진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보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02-958-4027)